

고려 현종말~문종초 北界 州鎮 설치와 長城 축조

윤 경 진*

1. 머리말
2. 국경지대 州鎮의 추가 설치
3. 長城 축조의 배경과 경유 州鎮
4. 맺음말

1. 머리말

고려는 성종 14년 강동 6주를 개척한 데 이어 현종 초에도 거란과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르면서 북방 개척을 진행하였다. 이 시기에 압록강 어귀의 麟州와 내륙 방면의 安義鎮, 朔州, 昌州 등을 설치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기존의 영토를 발판으로 각기 압록강 방면으로 진출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¹⁾

그런데 현종말부터 고려의 북계 주진 설치는 그 성격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현종초까지 주진의 설치는 영토를 새로 확보하고 해당 지역에 행정 및 군사 거점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종말 이후로는 영토 개척

* 경상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및 인문학연구소 연구원

1) 윤경진, 「고려 성종-현종초 북방 개척과 州鎮 설치」, 『역사문화연구』 38, 2011

보다 기존 영토를 토대로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게 되었다. 실제 북계 방면에서 현종초 이후 추가적인 영토 확보는 거의 없었다.

이것은 거란이 압록강 남안의 保州를 장악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고려는 압록강을 건너 개척을 진행할 수 없었고, 한편으로 거란의 위협에 대비하여 국경 지역의 방어력을 높여야 했다. 이에 고려는 기존에 확보된 지역을 토대로 방어선을 구축하였고, 이것은 덕종대 장성 축조의 토대가 되었다. 이후 정종대에 장성이 연장 축조되었고, 문종초까지 주진 설치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현종말에서 문종초에 이르는 시기의 북계 주진 설치는 이전 시기와는 역사성에 차이가 있으며, 통상적인 영토 확보의 관점이 아니라 기존 영토를 지키기 위한 방어체계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방 영토정책 및 契丹·金과의 영토 분쟁과 관련된 연구는 어느 정도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압록강 방면의 영토를 둘러싼 거란과의 분쟁은 자료적으로 뒷받침되어 일찍부터 연구자의 관심을 끌었다. 여기에 근래 발생한 중국의 동북공정은 북방 영토와 관련된 주제의 연구를 활성화시켰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대개 국가간의 '분쟁'을 고찰한다는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외교사적 맥락에 무게를 두는 경향을 보인다.²⁾ 반면 영역 편제와 지방통치의 수립, 방어체계의 형성과 같은 관점에서 당시에 진행된 州鎮 설치나 長城 축조의 실제 내용을 파악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³⁾ 이것은 무엇보다 영토 분쟁에 대한 자료에 비해 주진 편제나 장성 축조에 대해 직접

2) 김순자, 「10-11세기 高麗와 遼의 영토 정책: 압록강선 확보 문제 중심으로」, 『北方史論叢』 11, 2006.

김우택, 「11세기 對契丹 영역 분쟁과 高麗의 대응책」, 『韓國史論』 55, 2009.

허인욱, 「高麗의 歷史繼承에 대한 契丹의 認識變化와 領土問題」, 『한국중세사연구』 24, 2008.

허인욱, 「高麗 德宗·靖宗代 契丹과의 鴨綠江 城橋·城堡問題」, 『歷史學研究』 38, 2010.

3) 長城 지역의 州鎮 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논고로는 다음이 있으나 지방제도의 측면에서 천착되지는 못하였다.

尹武炳, 「高麗北界地理考」, 『歷史學報』 4·5, 1953.

申安湜, 「高麗의 北方政策과 城郭體制」, 『歷史教育』 38, 2004.

宋容德, 「高麗前期 國境地域의 州鎮城編制」, 『韓國史論』 51, 2005.

적으로 알려주는 자료가 적다는 한계에 기인한다. 하지만 자료 이해 및 연구 방법과 관련된 적극적인 모색이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를 짚어둘 필요가 있다. 먼저 장성은 덕종대부터 축조가 시작되었지만, 이것은 현종말에 진행된 압록강 방면의 주진 설치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종 20년부터 압록강 의주 방면에는 威遠鎮과 定戎鎮, 寧德鎮이 설치되었고, 덕종 때에는 靜州가 설치되었다. 이들은 새로운 영토 개척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영역을 토대로 실질적인 국경 방어선을 형성하기 위한 측면이 강했다. 장성은 이 주진들을 연결하는 데서 출발하였으며, 주진 신설과 장성 설치의 배경이 된 국제 정세 또한 하나의 흐름 속에 있었다. 그런 만큼 압록강 방면의 주진 신설과 장성 축조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에 덕종대에 시작해서 정종대에 마무리되는 장성 축조는 북방 국경선의 획정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시기에 따른 단계적 차이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덕종대에 이어 정종 원년 松嶺 以東에 장성을 축조하였고, 정종 7년 寧遠鎮과 平虜鎮을 신설하면서 關城, 곧 長城이 함께 축조되었다. 곧 북계 장성은 크게 세 단계에 걸쳐 축조된 것으로, 각 단계에 조응하여 각각의 역사적 배경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장성의 단계별 구간 및 구체적인 경유 지역을 확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덕종 2년 장성 축조 기사에는 장성의 경유 지역이 열거되어 있다. 곧 장성은 압록강 하구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威遠, 興化, 靜州, 寧海, 寧德, 寧朔, 雲州, 安水, 淸塞, 平虜, 寧遠, 定戎, 孟州, 朔州 등 '13'성을 지나 동계의 耀德, 靜邊, 和州를 거쳐 바다로 이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⁴⁾

지금까지 이 기사의 내용은 별다른 의심없이 수용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상당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우선 이 기사에서 북계 장성의 경유 지역은 '13'성이라 하였으나 실제 열거된 주진은 14개이다. 주진의 수를 잘못

4) 『高麗史』 권82, 兵2 城堡 덕종 2년. 世家에는 장성 축조가 덕종 2년 8월 기사로 되어 있다.

적은 것이거나 어느 하나가 잘못 들어간 것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

또한 열거된 주진 중에는 寧海鎮처럼 다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⁵⁾, 安水鎮처럼 장성이 경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⁶⁾ 興化鎮은 현종 21년에 靈州防禦使로 개정되었음에도 그 읍호 변동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본문에서 다루겠지만 昌州와 延州처럼 장성 경유가 분명한데도 열거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양상은 장성의 실제 경유 지역이 위 기사에 열거된 것과 다르거나 열거된 내용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사에 대한 분석과 보정을 통해 장성의 경유 지역을 확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북계 장성의 실체를 이해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논의는 크게 장성 경유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주진의 구체적인 연혁을 파악하는 것과 장성 축조의 배경과 경유 지역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뉜다.

우선 현종말부터 문종초에 걸쳐 장성 경유 지역에 추가로 설치된 주진의 연혁을 구체적으로 분석 보정할 것이다.⁷⁾ 이들의 설치 시점은 비교적 분명한 편이지만 연혁과 달리 이해될 사례도 없지 않다. 그리고 그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주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할 것이다.

한편 장성의 축조는 세 단계로 나뉘는데, 이를 처음 장성이 축조되는 단계와 이를 연장하는 단계로 나누어 그 배경과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자료에서 장성 축조의 목적은 외적 방어를 위한 關防의 설치라는 일반적 의미

5) 이에 대해서는 앞서 麟州로 비정한 바 있다(윤경진, 앞의 논문(2011)).

6) 安水鎮은 『고려사』 지리지에 朝陽鎮(連州·价州) 연혁에 포함되어 있으나 근래 永清縣에 새롭게 비정된 바 있다(윤경진, 「고려 태조-광종대 북방 개척과 州鎮 설치: 『高麗史』地理志 北界 州鎮 연혁의 분석과 補正」, 『奎章閣』 37, 2010①). 어느 경우든 장성 경유 지역이 될 수 없다.

7) 필자는 淸塞鎮에 대해 당초 현종 18년에 설치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현종초까지 대상으로 한 선행 논문(윤경진, 앞의 논문(2011))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長城 축조와 연계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새진은 安義鎮 등과 마찬가지로 현종초에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본고에서 설정한 시간 범위에서 벗어나지만, 선행 논문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여기서 함께 다루기로 한다.

이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시의 국제 정세나 주진의 지정학적 위치, 장성 설치 구간 등을 통해 설치 배경을 추출할 수 있다. 아울러 장성의 경유 지역이 분명치 않은 내륙 구간에 대해서는 그 경유 주진을 확정할 것이다.

2. 국경 지대 州鎮의 추가 설치

(1) 압록강 방면의 州鎮 설치

고려는 거란과 1차 전쟁을 벌인 후 강화 협상을 통해 압록강 以東의 영유권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현종초 2차 전쟁을 벌이고 이후 강동 6주를 둘러싼 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압록강 방면으로 추가적인 축성을 진행하였다. 해안 쪽에서는 麟州를 설치하면서 압록강 하구에 도달하였고, 내륙 방면으로도 기존의 영역에서 압록강 방면으로 접근하였다.

그러나 거란이 압록강 교두보의 남안을 장악하고 保州를 설치함으로써 고려는 더 이상 개척을 진행할 수 없었다. 대신 예상되는 거란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보주를 에워싸는 형태로 방어선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주진이 신설 또는 증축(이축)되었다. 이 작업은 현종말부터 시작되었으며 후일 이를 토대로 장성을 축조하게 된다.

여기서는 먼저 장성 축조 이전에 압록강 방면에서 진행된 축성과 그에 따른 방어선의 형성 과정을 해당 주진의 연혁 분석을 토대로 고찰하기로 한다. 여기에는 신설 주진 외에 이 시기에 연혁 변화가 있었던 경우도 포함된다.

1) 威遠鎮

| | |
|-------|--|
| 연혁 | 顯宗二十年 遣柳韶 修古石城 置之 鎮在興化鎮西北 |
| 성보(1) | 현종 20년 遣平章事柳韶等 修古石城 置威遠鎮 築城八百二十五間 門七 水口一 城頭十二 遮城十二 |

2) 定戎鎮

| | |
|-------|--|
| 연혁 | 顯宗二十年 遣柳韶 修古石壁 置鎮 徙永平民 實之 鎮在興化鎮北 |
| 성보(1) | 현종 20년 遣平章事柳韶等 (중략) 城定戎鎮八百三十五間 門七 水口三 城頭十二 遮城五 |

威遠鎮은 柳韶 열전에는 興化鎮을 기준으로 서북쪽 40리에 있다고 되어 있으며,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의주 남쪽 25리에 있다고 되어 있다.⁸⁾ 홍화진은 의주 남쪽 55리에 있다. 여기서 위원진이 의주와 홍화진을 연결하는 선을 기준으로 그 중간 지점에서 서쪽으로 나아간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定戎鎮은 현종 20년 위원진과 함께 설치되었다.⁹⁾ 정용진은 의주 동쪽 80리에 있으며, 유소 열전에는 홍화진 북쪽에 위치한 것으로만 나온다. 곧 홍화진에서 압록강을 향해 북쪽으로 전진 기지를 건설한 것이다.

고려는 거란과의 전쟁으로 압록강 남안 지역을 상실함으로써 홍화진이 실질적인 최전방 기지가 되었다. 이에 홍화진이 보주를 마주보는 선을 축으로 그 양편에 날개처럼 聲援할 수 있도록 위원진과 정용진을 건설한 것이다. 그 결과 3개의 주진이 보주 지역을 견제하며 둘러싸는 형태로 배치되었다.

이처럼 고려가 현종 20년 압록강 방면에 주진을 신설하고 방어선을 구축한 것은 같은 해에 일어난 興遼國의 반란으로 압록강 방면의 정세가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현종 20년 9월 거란의 東京將軍 大延琳이 고려에 사신을 보내 건국을 통보하였는데, 이것이 興遼國이다. 渤海를 건국한 大祚榮의 7대손인 대연립은 동경을 거점으로 거란에 반기를 들면서 고려에 원조를 청하였다.¹⁰⁾ 12월에는 高麗國의 大師 大延定이 東北女眞을 이끌고 거란과 전투를 벌이면서 재차 지원을 요청했으나 고려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 인해 거란과의 교통로가 막히게 되자¹¹⁾ 고려는 西北面判兵馬事 柳韶로 하여

8) 이차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수록된 위치를 채용한 경우 일일이 전거를 밝히지 않기로 한다.

9) 『高麗史』 兵志 城堡조 기사 중 성곽 규모가 함께 정리된 것은 성보(1), 기타 축성 사실만 언급된 것은 성보(2)로 구분하기로 한다.

10) 『高麗史』 권5, 현종 20년 9월 戊午, “契丹東京將軍大延琳 遣大府丞高吉德 告建國 兼求援 延琳 渤海始祖大祚榮七代孫 叛契丹 國號興遼 建元天興.”

11) 『高麗史』 권5, 현종 20년 12월 庚寅.

금 赴鎮하여 대비하도록 하였다.¹²⁾ 고려는 홍요국의 반란으로 인해 국경 지대의 정세가 불안해지자 유소를 보내 방비를 강화한 것이다.

그런데 같은 해 이루어진 위원진 등의 설치 또한 유소가 주도한 것이었다. 열전 기록에 따르면 유소는 이 해에 왕명을 받아 위원진 등을 설치하였는데, 세가에는 당시 유소가 홍요국을 대비하기 위해 赴鎮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홍요국 반란에 대응하여 고려가 수립한 방어체계가 바로 위원진 등의 축성이었던 것이다.

홍요국은 이듬해까지도 고려에 거듭 사신을 보내 지원을 요청했지만 고려는 수용하지 않았다.¹³⁾ 결국 홍요국은 거란의 토벌로 건국 1년여 만에 멸망하였다. 이에 고려는 거란에 사신을 보내 동경의 수복을 축하하고 외교를 재개하였다.¹⁴⁾

3) 麟州

麟州는 현종 즉위년 경에 寧海鎮으로 설치되었으며 현종 9년에 麟州防禦使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인주는 현종 21년에도 축성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증축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된다.¹⁵⁾ 인주의 증축은 『고려사절요』에 2월 기사로 나오고 있어 9월 기사로 나오는 寧德鎮 설치보다 먼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前年에 있었던 위원진 등의 설치와 연결해 볼 때 인주의 증축은 압록강 방어선의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4) 寧德鎮

| | | |
|-------|--------------------------|------------------------------------|
| 연혁 | 文宗十年 避契丹興宗諱 改鎮爲城 以鎮字從眞字也 | |
| 성보(1) | 현종 21년 | 城麟州 (중략) 城寧德八百五十二間 門七 水口一 城頭十四 遮城七 |

12) 『高麗史』 권5, 현종 20년 12월 壬辰, “命西北面判兵馬事柳詔 赴鎮 以備興遼.”

13) 『高麗史』 권5, 현종 21년 정월 丙寅; 『高麗史』 권5, 현종 21년 7월 乙丑. 고려가 홍요국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거란과 재차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부담 때문으로 추정된다. 후술하듯이 고려는 거란 정세의 혼란을 틈타 보주 방면을 경략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었으나 끝내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14) 『高麗史』 권5, 현종 21년 9월 甲戌.

15) 윤경진, 앞의 논문(2011).

寧德鎮은 의주의 동남쪽 40리에 있다. 정유진이 의주 동쪽 80리에 있으므로 영덕진은 홍화진과 정유진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영덕진의 설치 시점은 연혁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성보(1)에는 현종 21년으로 되어 있으며, 『고려사절요』에는 동년 9월 기사에 보여 이 해에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유진 설치에 이어 홍화진과 정유진 사이를 보강한 것이다.

영덕진은 거란의 전초 기지인 來遠城과 마주하며 문서를 교환하는 곳이었다. 정종 원년 5월 거란은 고려 興化鎮에 통첩하였는데¹⁶⁾, 같은 해 6월 내원성에 回牒한 주체는 寧德鎮이었다.¹⁷⁾ 그리고 정종 3년 내원성이 다시 고려에 통첩할 때 이를 접수한 곳은 영덕진이었다.¹⁸⁾

이를 통해 당초 고려의 변경에서 거란과 통첩하던 곳은 홍화진이었으나 영덕진이 건설된 후 그 창구가 영덕진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종 원년 당시 거란은 종전과 같이 홍화진으로 통첩했으나 고려의 회신이 영덕진으로부터 오자 이후로는 영덕진으로 통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문종 때 거란 興宗의 이름을 피하여 寧德鎮을 寧德城으로 改號한 것도 이곳이 거란에 통첩하는 창구로서 문서에 그 명칭이 기재되었기 때문이다.

5) 靈州(興化鎮)

고려의 압록강 방면 최전방 기지였던 홍화진은 현종 21년에 靈州防禦使로 개편되었다. 홍화진은 강동 6주 중에서 유일하게 현종 9년까지도 州로 개편되지 않고 鎮으로 남아 있었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나 압록강 교두보로 나아가는 요새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려는 강동 6주를 건설하면서 내륙 경로와 해안 경로 두 방향으로 개척을 진행하였다. 이때 내륙 방면의 전략적 중심지가 된 곳은 홍화진 후방에 있는 龜州였다. 귀주를 중심으로 압록강 건널목 방면으로 홍화진이 전진 배치된 구도인 것이다. 그리고 현종초에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귀주 북쪽

16) 『高麗史』 권6, 靖宗 원년 5월, “契丹來遠城 使檢校右散騎常侍安署 牒興化鎮.”

17) 『高麗史』 권6 靖宗 원년 6월, “是月 寧德鎮廻牒契丹來遠城.”

18) 『高麗史』 권6, 靖宗 3년 9월, “是月 契丹來遠城 奉皇帝宣旨 牒寧德鎮.”

에 추가로 安義鎭을 설치하였다.

현종 9년 거란 蕭排押이 침공했을 때 姜邯贊이 이끄는 고려군은 홍화진에서 거란군을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그리고 거란군이 개경을 直攻했다가 퇴각할 때 고려군은 龜州로 이동하여 길을 차단하고 거란군을 섬멸하였다. 이것은 홍화진과 귀주의 전략적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홍화진이 최전방 요새로서 적의 예봉을 꺾는 위치에 있었다면, 귀주는 이 방면을 지휘하는 전략 중심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위원진과 정용진, 영덕진 등이 추가로 건설되면서 최전방 요새로서 홍화진의 역할은 줄어들었다. 한편으로 이 지역에 밀집 배치된 주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략 중심이 요구되었다. 후방의 귀주가 이 주진들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홍화진을 영주방어사로 개편하여 압록강 방어선의 전략 중심으로 삼은 것이다. 곧 영주는 과거 귀주가 담당하던 역할을 일정하게 이어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홍화진의 현종 21년 연혁은 덕종 원년 기사에 靈州의 용례가 보여 그 사실성이 인정된다.¹⁹⁾ 그런데 한편으로 현종 21년 이후에도 興化鎭의 용례가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해당하는 용례는 덕종 2년 장성 축조 기사와 정종 원년 거란 來遠城에서 홍화진에 통첩한 기사가 있다.²⁰⁾

우선 장성 축조 기사는 시점의 혼선이 보인다. 곧 정종 7년에 비로소 설치되는 寧遠鎭과 平虜鎭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寧海鎭은 현종 9년에 麟州로 개정된 상태였다. 마찬가지로 靈州가 興化鎭으로 나오는 것도 시점의 혼선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에 정종 원년 기사는 거란의 來遠城에서 통첩한 문서에 수령자를 興化鎭으로 적은 결과로 보인다. 곧 거란은 홍화진이 영주로 개편된 상황을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령자를 그대로 홍화진으로 적은 것이다. 문서의 회신자가 寧德鎭이었던 것에서 드러나듯이 거란은 당시 외교 문서의 수발

19) 『高麗史』 권53, 五行1 火 덕종 원년 2월 癸酉, “靈州火.”

20) 『高麗史』 권6, 靖宗 원년 5월.

창구 변경을 모르는 상태였다. 이에 이전처럼 수령자를 홍화진으로 적어 보낸 것이 『고려사』 기사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6) 靜州

| | | | |
|-------|---|--|--|
| 연혁 | 本 高麗 松山縣 德宗二年 築城 徙民一千戶 實之 文宗三十二年 又以靜州等五城 城大民小 徙內地民 各百戶 實之 | | |
| 성보(1) | 덕종 2년 | 又城靜州鎮一千五百五十三間 門十 水口一 城頭四十五 遮城九 重城二百六十間 | |

靜州는 의주의 남쪽 25리에 있으며 압록강에 바로 인접해 있다. 인주와 위원진 사이에 해당하는데, 조선 태종 때 위원진과 함께 의주에 폐합되었다. 다른 주진의 연혁에 비추어 정주 역시 鎭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本’ 음호가 松山縣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설치 당시 鎭의 명칭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성종-현종대에 후방의 鎭이 대부분 州로 전환되었고, 장성 기사에 홍화진(영주)이나 영해진(인주)과 달리 靜州로 나오고 있어 처음부터 州였을 가능성이 높다.²¹⁾ 성보조에는 靜州鎭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정주로 설치된 것을 주변의 위원진 등과 같은 맥락에서 鎭으로 인식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한편 『고려사』 樂志에는 정주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 기사가 보인다.

來遠城은 靜州에 있으니 水中에 있는 땅이다. 狄人이 來投하면 이곳에 두는데 그 城의 이름을 來遠이라 하고 노래를 만들어 기록하였다.²²⁾

위의 기사는 三國俗樂 중 高句麗 항목에 있는 ‘來遠城’이라는 노래에 대한 설명인데, 가사는 전해지지 않는다. 이 기사는 고구려 속악에 대한 설명이므로 고구려 때의 지명으로 파악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고구려 때 이 지역에 來遠城을 두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고구려의 영토를 고려

21) 松山은 『新增東國輿地勝覽』에 義州의 鎭山으로 나오는데, 본래 정주의 관할이었다가 조 선초기 정주가 의주에 병합된 후 의주의 鎭山으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된다.

22) 『高麗史』 권71, 志25 樂2 三國俗樂-高句麗, “來遠城 在靜州 卽水中之地 狄人來投 置之於此 名其城曰來遠 歌以紀之.”

할 때 변경도 아닌 이 지역에 내투한 '狄人'을 둘 이유도 생각하기 어렵다. 내투한 狄人을 압록강의 섬에 둔다는 것은 이 지역이 접경 지대임을 의미하며, 따라서 고려 때의 상황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 자료는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한다.

西京將軍 柳涉이 압록강의 船兵을 防守하는데, 契丹人이 來投하자 追捕하는 자가 長城을 넘어 들어와 靜州를 압박하였음에도 涉이 守禦하지 못하므로 制를 내려 免官케 하였다.²³⁾

위의 기사는 문종 27년의 것으로서 거란에서 장성을 넘어 정주로 내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내투한 적인을 정주 관할의 섬에 안치시키는 조치와 부합한다. 이는 정주가 거란 방면에 가장 근접한 곳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상황이다.²⁴⁾

한편 의종 19년 金의 장수가 인주와 정주 관내의 섬들을 공격하고 방수 하던 靜州의 別將을 잡아간 일이 있었다.²⁵⁾ 여기서 정주가 인주와 함께 압록강의 섬들을 관할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결국 고려는 정주 방면으로 들어오는 거란인들을 정주 관내의 섬에 안치시켰던 것이²⁶⁾ 樂志에서는 고구려 때의 사적으로 오인하여 정리한 것이다.²⁷⁾

23) 『高麗史』 권9, 문종 27년 6월 己卯, “西京將軍柳涉 防守鴨綠船兵 有契丹人來投 其追捕者 越入長城 逼靜州 涉不能守禦 制令免官.”

24)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정주와 위원진은 의주 남쪽 25리, 영주(홍화진)는 의주 남쪽 55리, 영덕진은 의주 동남쪽 40리로 되어 있다. 특히 정주는 압록강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란 쪽에서 강을 건너면 바로 고려 영내로 진입하게 된다.

25) 『高麗史』 권18, 의종 19년 3월 辛亥, “金大夫營主 道鏡卒七十餘人 攻麟靜二州境內之島 執防守靜州別將元向等十六人 以歸.”

26) 『고려사』에는 주로 南地에 안치시키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 정주 관내의 섬에 안치시킨 것은 초기에 있었던 임시적인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27) 이때 내투한 적인들을 안치한 지역을 來遠城으로 불렀다는 점이 주목된다. 내원성은 거란이 고려에 외교 문서를 통첩하는 창구로서 홍화진 또는 영덕진과 교통로가 연결되어 있었다. 이로 보면 거란의 행정 단위로써 내원성이 정주 관할의 섬에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것은 고려 쪽의 인식에 따른 혼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따로 논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2) 내륙 방면의 州鎮 설치

이번에는 정유진 이동의 내륙 방면에 설치된 주진 중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국경 지역 주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淸塞鎮

| | | |
|-------|--------------------------------------|----------------------------|
| 연 혁 | 高宗四年 以禦丹兵有功 陞威州防禦使 後 投狄背國 改稱熙州 爲价州兼官 | |
| 성보(1) | 현종 18년 | 城淸塞鎮八百二十一間 門七 水口四 城頭十五 遮城四 |
| 성보(2) | 경종 4년 | 城淸塞鎮 |

淸塞鎮은 곧 熙州로서 延州의 동쪽, 德州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朔州와 雲州를 거친 장성이 동계 방면으로 넘어가는 지점에 위치하며, 후술하듯이 寧遠鎮 축성 이전까지 장성의 동단이었다.

연혁에는 축성과 설치에 관련된 기사가 없으며, 성보(1)에는 현종 18년, 성보(2)에는 경종 4년의 축성 기사가 있다. 후자를 취할 경우, 광종말 연주 등이 축성된 뒤 경종대에 이 방면에 대한 추가적인 개척이 진행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당시 정황으로 볼 때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고려는 광종대 개척된 嘉州 지역을 상한으로 더 이상 북계 방면으로 영토 개척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성종 4년까지 고려는 雲州와 泰州, 博州를 연결하는 선을 경계로 삼고 있었으며, 성종 13년부터 강동 6주를 개척하면서 비로소 압록강 방면으로 진출하는 데 주력하였다. 현종초 태주와 운주에서 다시 압록강 방면으로 개척을 진행하여 朔州와 昌州가 설치되었다. 따라서 이보다 앞서 경종대에 내륙 방면으로 개척이 진행되어 청새진을 두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편 경종 4년(己卯)을 1주갑 내려 정종 5년에 설치된 것으로 이해할 여지도 있다. 정종 원년부터 장성을 연장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청새진이 설치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술하듯이 1차 장성이 3개월만에 끝난 점과 정종 7년에 關城 축조가 있었던 점으로 보아 정종 원년에 시작한 장성 연

장이 정종 5년 청새진 설치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청새진이 2차 장성의 동단이 되었다면 정종 원년 이전에 이미 설치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청새진의 설치를 성보(1)처럼 현종 18년으로 보는 것도 난점이 있다. 현종 9년 蕭排押의 침공을 끝으로 고려는 거란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았다. 이후 현종 20년 압록강 방어선을 형성할 때까지 고려가 국경 지역에 주진을 추가 설치할 만한 상황이 발견되지 않고, 당시 설치를 확정할 만한 사례도 찾을 수 없다. 이에 비추어 청새진만 현종 18년에 설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현종 18년에서 12년 올라간 현종 6년을 생각할 수 있다. 현종 6년의 간지는 乙卯이다. 성보조에 기록된 현종 18년은 丁卯, 경종 4년은 己卯이다. 모두 오독의 가능성이 상정된다. 곧 실제 축성 시점은 현종 6년인데, 간지의 오독으로 경종 4년 및 현종 18년이라는 시점이 생성된 것이다.

현재로서는 청새진의 설치 시기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고려가 현종초 기존 영토를 토대로 추가 진출하는 방향에서 다수의 주진을 설치하였음을 고려할 때, 연주 내지 덕주에서 추가 진출한 위치에 있는 청새진 역시 이 즈음에 설치되었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이다.

2) 寧遠鎮

| | | |
|-------|-------------|--|
| 연혁 | 靖宗七年 命崔冲 築城 | |
| 성보(1) | 정종 7년 | 崔冲城寧遠平虜二鎮 寧遠城七百五十九間 堡子八 區內金剛戌四十二間 宣威戌六十一間 宣德戌五十間 長平戌五十三間 鼎峯戌三十八間 鎮河戌四十二間 鐵壩戌六十一間 定安戌三十二間 關城一萬一千七百間 |

3) 平虜鎮

| | | |
|-------|-------------|---|
| 연혁 | 靖宗七年 命崔冲 築城 | |
| 성보(1) | 정종 7년 | 崔冲城寧遠平虜二鎮 (중략) 平虜城五百八十二間 堡子六 區內擣戎戌三十六間 鎮兎戌三十間 直峯戌四十一間 降魔戌五十間 折衝戌三十間 靜戎戌三十間 關城一萬四千四百九十五間 |
| 성보(2) | 목종 4년 | 城永豐 平虜二鎮 |

고려는 현종초 내륙 방면에서 삭주, 창주, 청새진을 차례로 설치하였으나 현종 20년부터 압록강 방어선 구축에 주력하면서 내륙 방면의 개척은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정종 원년 장성을 내륙 방면으로 연장하면서 삭주에서 청새진까지 장성이 축조되었다. 당시 청새진 동쪽은 공백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고려는 이 지역으로 장성을 연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새로 鎭을 설치했는데, 이들이 寧遠鎭과 平虜鎭(柔遠鎭)이다.

정종 7년 최충은 왕명에 따라 邊境에서 城池를 拓定하고 寧遠鎭·平虜鎭과 堡 14개를 설치하였다.²⁸⁾ 이 조치는 청새진에 이른 장성을 동계 방면으로 연결하기 위해 내륙 깊은 곳을 추가로 개척한 것으로서 14개의 堡는 바로 장성 축조에 수반하여 설치된 것이다.

두 鎭은 몽고의 침입으로 永淸縣 지역에 僑寓하다가 조선에 들어 그대로 폐합되었다. 이에 영청현과 영원진의 읍호를 따서 永寧縣이라 하였으나 세종 때 永寧殿의 이름을 피하여 평로진의 개정된 명칭인 柔遠鎭의 읍호를 따서 永柔縣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세조 때 예전 자리에 새로 寧遠郡을 두었다.

이로인해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유원진은 영유현 고적조에 수록되었는데, 그 위치는 교우하던 곳에 해당한다. 반면 영원진은 영원군 연혁으로 들어갔는데, 영원진이 교우하던 곳은 영유현 고적조에 古寧遠으로 수록되었다.²⁹⁾

본래 자리에서는 평로진이 영원진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는 다음 자료를 통해 유추된다.

보낸 군사 6천 명이 淸塞鎭에서 싸웠는데, 적을 생포하고 죽인 것이 아주 많았다. 平虜鎭都領 祿進도 역시 70여 명을 격살하니 적이 드디어 청새진을 넘어 도망갔다.³⁰⁾

28) 『高麗史』 권95, 列傳8 崔冲, “王命冲行邊境拓定城池 賜衣遣之 冲置寧遠 平虜等鎭及諸堡十四.”

29) 寧遠鎭과 平虜鎭의 僑寓에 대해서는 윤경진, 「고려후기 北界 州鎭의 海島入保와 出陸 僑寓」, 『震檀學報』 109, 2010 ② 참조.

30) 『東文選』 권69, 金平章行軍記, “所遣六千人 戰于淸塞鎭 擒殺過當 平虜鎭都領祿進亦擊殺七十餘級 賊遂踰淸塞鎭遁去.”

위의 기록은 李齊賢이 찬한 「金平章行軍記」의 일부로서 고종 3년 거란의 침입을 막아낸 金就礪의 공적을 적은 것이다. 위의 전과는 청새진 방면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여기에 平虜鎮都領이 참여하여 전과를 올렸다. 이는 청새진과 평로진이 서로 인접해 있음을 시사한다.³¹⁾

이에 따르면 평로진은 청새진과 영원진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예종 4년 關外蕃長을 引見한 기사에서 延州와 淸塞鎮, 平虜鎮이 차례로 언급된 것에서도 이러한 위치 관계를 가늠할 수 있다.³²⁾

한편 平虜鎮의 경우 성보조에 목종 4년에 축성되었다는 기사가 있는데, 평로진 설치의 정종 7년이 확실하므로 목종 4년은 오기이다. 목종 4년의 간지가 辛丑이고, 정종 7년의 간지가 辛巳라는 것을 볼 때, 간지의 오독에 의해 시점이 잘못 비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간지 오독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사례로서 다른 주진의 연혁을 유추하는 데 단서를 제공한다.

4) 寧朔鎮

| | | | |
|-------|---------------------|---|--|
| 연혁 | 古 榛田 高麗 改今名 文宗四年 築城 | | |
| 성보(1) | 문종 4년 | 城安義鎮榛子農場 爲寧朔鎮 以扼蕃賊要衝 六百六十八間 門六 水口三 城頭十三 遮城五 | |
| 성보(2) | 광종 20년 | 城寧朔鎮 | |
| 성보(2) | 정종 9년 | 城寧朔 樹德二鎮 | |

寧朔鎮은 安義鎮의 榛子農場에 새로 설치한 鎮으로서 의주 동쪽 120리에 있었다. 이곳은 안의진에서 장성 쪽으로 더 올라온 위치이다. 곧 영삭진은 장성이 통과하는 지역으로 정유진과 삭주 사이에 자리한 것이다.

연혁에서 문종 4년에 축성했다는 기록은 성보(1)의 내용과 일치한다. ‘古’ 읍호로 되어 있는 榛田과 성보(1)에 나오는 榛子農場은 같은 지역이다. 그런데 성보(2)에는 광종 20년과 정종 9년 두 개의 축성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영삭진은 그 위치로 보아 광종 20년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은 없다. 이 연

31) 金希礪 열전에는 淸虜鎮의 용례가 보인다(『高麗史』 권103, 列傳16 金希礪, “是夜 冰合乃渡 入自淸虜鎮”). 청로진은 지리지에서 확인되지 않는 鎮인데, 의미상 청새진이나 평로진의 오기이거나 두 진을 合稱한 것이 아닌가 한다.

32) 『高麗史』 권13, 예종 4년 2월 己亥.

혁은 泰州 연혁과 관련된 것이다. 태주는 광종 20(21)년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며, 연혁 중 주기로 “一云寧朔鎭”이라는 기사가 들어 있다. 정보(1)에 광종 20년에 태주에 축성한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와 광종 20년 영삭진 축성 기사는 실제로는 같은 사실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에 정종 9년의 축성 기사의 실체는 분명하지 않으며, 축성과 관련된 특별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영삭진 설치를 문종 4년의 일로 보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榛子農場과 陳田으로 명칭을 조금 달리하면서도 시점이 같은 것이나 기사 내용에 蕃賊의 요충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까지 밝힌 것에서 그 사실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寧朔鎭과 관련하여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덕종 2년 장성 축조 기사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영삭진이 장성 경유 지역임은 분명하지만, 북계 장성은 정종 7년 영원진과 평로진을 설치하고 관성을 축조하면서 완성되었다. 기사가 수록된 덕종 2년은 장성 축조가 시작된 시점으로서 여기에 완성된 장성의 경유 주진들을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그 시점은 정종 7년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 문종 4년에 비로소 설치된 영삭진이 들어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장성 축조 기사에 열거된 북계 주진의 수가 14개인데 기사에는 13개로 적고 있다는 데서 이해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十四’를 ‘十三’으로 잘못 적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열거된 주진의 수를 센 것이므로 단순한 오류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여기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追記’의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곧 본래 자료에는 정종 7년을 기준으로 13개 주진을 열거했는데, 뒤에 하나가 추가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것은 원 자료에서 추기된 것일 수도 있고, 편집 과정에서 추가한 것일 수도 있으나 후자의 경우 당연히 열거된 수를 ‘十四’로 적었을 것이라고 보면 전자의 가능성이 높다. 食貨志 外官祿 규정에서 이러한 원 자료상의 추기가 구분없이 그대로 전제되어 기준 시점과 내용을 이해하는 데 난점을 초래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³³⁾

33) 外官祿 규정에 들어 있는 追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윤경진, 『『고려사』 식화지(食貨志) 외관록(外官祿) 규정의 기준 시점과 성립 배경』, 『역사와현실』 78, 2010③ 참조.

이때 장성 경유 주진으로 추가된 것이 바로 寧朔鎮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13개 주진을 수록한 원 자료에 영삭진이 추기되었는데, 그에 연동하여 전체 숫자는 고치지 않음으로써 자료에 기재된 전체 주진 수와 실제 열거된 주진의 수가 서로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3. 長城 축조의 배경과 경유 州鎮

(1) 1차 長城 축조의 배경

고려가 현종말에 주진을 추가로 설치하며 압록강 방어선을 강화한 것은 興遼국의 반란으로 인해 압록강 방면의 정세가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興遼국의 반란은 곧 진압되었지만 그 여파는 德宗대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德宗 2년 장성 축조는 그에 대한 대응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고려는 興遼국의 반란이 발생하자 국경 지역에 城池를 갖추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때 축성된 곳이 바로 위원진과 정용진 등이다. 그런데 德宗 즉위 후 거란 聖宗이 사망하자 고려는 이것이 압록강 방면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적극적인 행보를 모색하게 되었다.

당시 논의를 주도한 王可道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契丹이 우리와 通好하여 예물을 교환하고 있으나 并呑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왕이 죽었는데 駙馬 匹梯가 東京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를 이용하여 압록강의 城橋를 철거하고 억류된 우리 行人을 돌려보낼 것을 청하되 만약 듣지 않거든 관계를 끊어도 될 것입니다.³⁴⁾

위에서 압록강 城橋란 앞서 거란이 고려를 침공하면서 압록강에 설치한

34) 『高麗史』 권94, 列傳7 王可道, “契丹與我通好交贄 然每有并呑之志 今其主殂 駙馬匹梯 叛據東京 宜乘此時 請毀鴨綠城橋 歸所留我行人 若不聽 可與之絕.”

시설을 말한다.³⁵⁾ 이 城橋는 거란이 상시적으로 고려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었기 때문에 고려는 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곧 압록강 성교는 왕가도가 지직한 “거란의 병탄 의도”를 직접 보여주는 실체였던 것이다.

한편 동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駙馬 匹梯는 『遼史』에서 그 명칭이 확인되지 않는데, 당시 역모 혐의로 처형된 蕭匹敵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소필적인 대연림의 홍요국 반란을 진압한 인물로서 興宗 즉위 직후 역모를 꾀했다는 무고로 황후에 의해 賜死되었다.³⁶⁾ 그가 동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그의 혐의를 前年에 있었던 홍요국의 반란과 연결하여 이해한 결과로 생각된다.

왕가도는 이러한 거란 정세의 혼란을 이용해 압록강 방면의 경략에 나서고자 하였다. 이에 고려는 일차적으로 거란에게 성교의 철거를 요구하였다. 이것은 곧 보주 방면을 고려가 장악한다는 의미였다. 이를 거란이 수용하지 않자 고려는 다시 통교 유지 여부를 논의하였다.

이때 통교를 끊자는 徐訥 등과 통교를 유지해야 한다는 皇甫兪義 등의 견해가 맞았으나 덕종은 왕가도 및 서늘의 의견을 따라 賀正使를 정지하는 한편 새 연호의 도입을 거부하고 성종의 太平 연호를 계속 사용하였다. 완전한 국교의 단절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데 대해 외교적 압박을 가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보다 공격적인 대응을 요구하였다. 柳韶는 丹城, 곧 保州城을攻破할 것을 청하였는데, 이는 전술한 왕가도의 입론을 강화한 것이었다. 정계는 다시 군사적 행동은 안된다는 徐訥·皇甫兪義 등의 의견과 기회를 살려 출병해야 한다는 王可道·李端 등의 주장이 맞았다. 덕종은 太廟에서 점을 쳐 가부를 판단했는데, 결국 出兵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처럼 고려는 직접적인 공격에 이르지지는 않았지만, 외교적 압박을 택한 이상 그에 대한 거란의 반발과 침공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고려

35) 『高麗史』 권4, 현종 6년 정월, “契丹作橋於鴨綠江夾橋 築東西城 遣將攻破 不克.”

압록강 城橋의 구체적인 내용은 허인옥, 앞의 논문(2010) 참조.

36) 『遼史』 권18, 聖宗 太平 11년 6월 辛丑.

정계의 분위기로 볼 때 보주 방면에 대한 군사적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조치가 상정된다.

덕종 2년 장성의 축조는 바로 이러한 상황의 결과물이었다. 이는 다음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어찌 지난 수년 동안 舊好를 살피지 않고 石城을 쌓아 大路를 차단하고 木寨를 세워 奇兵을 감춰두려고 하는가³⁷⁾

위의 기록은 정종 원년 거란에서 보내온 문서의 일부이다. 거란이 고려에 대해 힐난하는 내용은 장성 축조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장성 축조에 따라 외부에서 고려 영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부 지역에 설치된 관문을 거쳐야 했다. 거란이 大路를 차단했다는 것은 이를 가리킨다.

그리고 木寨를 세워 奇兵을 감춰둔다는 것은 군사적 방어의 강화를 의미한다. 이것은 현종 20년 이후 압록강 방어선의 구축을 통해 이미 진행되고 있던 것인데, 장성 축조에 수반하여 각지에 목책을 건설하여 병력을 비축해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덕종 2년 장성 축조가 거란과의 외교적 긴장 속에 국경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물론 현종 20년 압록강 방어선의 구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덕종초의 경략 모색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고려의 군사적 조치는 외교적 압박과 병행되었기 때문에 거란은 외교 문서에서 위와 같이 고려를 힐난하였던 것이다.

덕종 2년 장성 축조를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때, 그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고려가 이 당시부터 전 국경에 걸친 장성의 축조를 의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축조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인 동년 11월에 關城 개척에 공을 세운 西女眞 무리를 포상한 것은 당시 축성이 단기간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³⁸⁾ 이로 보아 축성은 현종말에 수

37) 『高麗史』 권6, 靖宗 원년 5월, “曷越數年 不尋舊好 累石城而擬遮大路 堅木寨而欲礙奇兵.”

38) 『高麗史』 권5, 덕종 2년 11월 辛卯, “以西女眞芟火等一百五十六人 開拓關城時 並有功勞 加爵一級.”

립된 압록강 방어선을 연결하는 한편 이를 일정하게 확대하는 수준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1차 장성의 범위는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그 西端은 응당 압록강 어귀의 麟州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정종 원년 2차 장성의 축조가 松嶺 以東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1차 장성의 東端은 송령이 된다. 하지만 현재 송령의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장성의 동단 역시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1차 장성이 압록강 방어선을 토대로 하고 있는 만큼 그 동단은 定戎鎭에서 멀지 않은 지점이 될 것인데, 그 가능성이 높은 곳이 朔州이다. 이것은 다음 자료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契丹이 留使를 보내 來遠城에 이르렀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침내 朔州와 寧仁鎭, 派川 등의 縣에 성을 쌓아 대비하였다.³⁹⁾

위의 기사는 덕종 원년의 것으로서 고려는 거란의 사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편 朔州 등에 성을 쌓아 방비를 강화하였다.⁴⁰⁾ 정보조에도 덕종 원년에 삭주에 축성한 기사가 보인다. 그런데 삭주는 현종초에 이미 설치되어 현종 9년에 삭주방어사로 개편되었으므로 이때의 축성은 增築 내지 移築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현종 21년 麟州가 증축된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인주의 증축은 당시 압록강 방어선의 서쪽 거점인 위원진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의미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삭주는 압록강 방어선의 동쪽 거점인 정유진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지정학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덕종 원년에 삭주를 증축한 것은 이러한 기능을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덕종 2년 장성 축조에서

39) 『高麗史』 권5, 덕종 원년 정월 乙酉, “契丹遺留使來 至來遠城 不納 遂城朔州寧仁鎭派川等縣 備之.”

40) 寧仁鎭과 派川縣은 동계 소속이고 최전방도 아니어서 당시 거란 정세에 직접 대응할 목적으로 축성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데, 같은 시기에 축성되어 연결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윤경진, 앞의 논문(2011)).

인주가 그 西端이 되는 것처럼 방어선의 동쪽 배후 기점인 삭주가 그 동단이 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당시 장성 축조는 단순히 '장벽'을 건설하여 방비를 강화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전략도 수반하고 있었다. 그 산물이 바로 靜州의 설치였다. 고려가 장성을 축조하기 시작한 지 2개월 만인 덕종 2년 10월 거란이 정주를 침공한 데서 정주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⁴¹⁾ 다음 기사 역시 정주의 전략적 의미가 잘 나타난 사례이다.

都兵馬使가 상주하기를, “지금 遼의 東京兵馬都部署가 移文하여 靜州關内の 軍營을 혁파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근래 大安 연간에 遼가 鴨江에 亭子和 樞場을 두고자 하여 我朝가 사신을 보내 혁파를 청하니 遼帝가 들어주었습니다. 지금 또한 그 청을 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므로 制可하였다.⁴²⁾

위의 기사는 숙종 6년의 것으로서 당시 고려가 정주 關内に 軍營을 설치한 데 따른 양국의 외교 분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조치에 대해 거란 쪽에서 혁파를 요청해 온 것은 정주의 군영이 거란의 보주 방면에 대해 군사적 부담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특히 고려에 移文한 주체가 보주나 내 원성이 아니라 東京兵馬都部署라는 것은 정주의 군영 설치가 전략적으로 중대한 조치였음을 가늠케 한다.⁴³⁾

현종 21년 인주의 증축을 통해 압록강 방어선의 서쪽 거점인 위원진을 배후에서 지원하도록 했지만, 이 지역은 압록강과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거란의 직접적인 공격에 노출될 수 있었다. 이에 인주와 위원진 사이의 압록강 인접 지점에 정주를 설치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거

41) 『高麗史』 권5, 덕종 2년 10월 丁未, “契丹侵靜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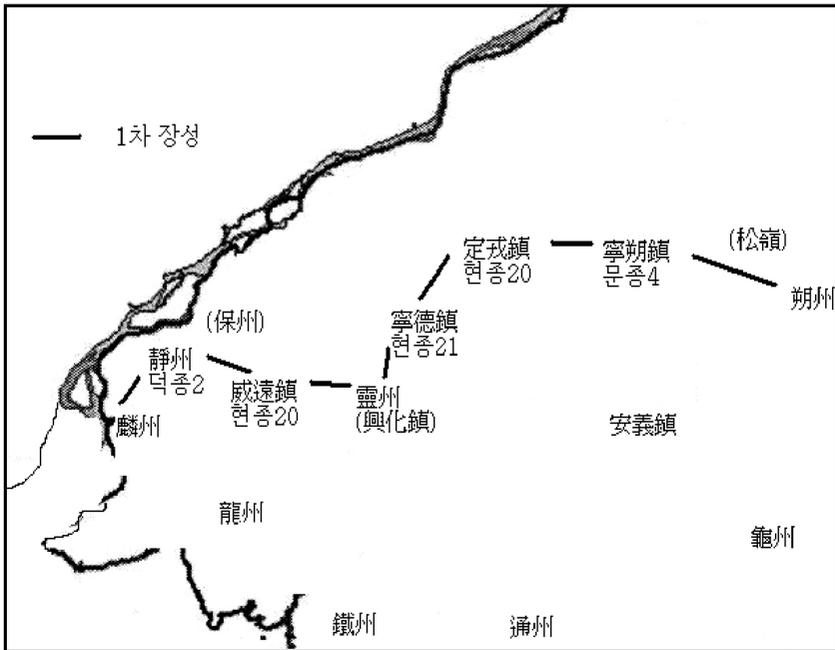
『高麗史節要』에는 靜州의 축성이 거란의 靜州 침공보다 뒤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서로 계통이 다른 자료에서 채록하여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이다.

42) 『高麗史』 권11, 숙종 6년 8월 乙巳, “都兵馬使奏 今遼東京兵馬都部署 移文 請罷靜州關內軍營 頃在大安中 遼欲於鴨江 置亭子和樞場 我朝遣使請罷 遼帝聽之 今亦宜從其請 制可.”

43) 한편 大安 연간의 일은 선종 5년 거란이 설치한 亭子和 樞場의 혁파를 요청하여 허락을 받은 일을 가리킨다(『高麗史』 권10, 선종 5년 9월).

란 쪽을 직접 압박하는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거란에서 내부한 사람들이 정주로 넘어온 것이나 정주 관내에 군영을 설치한 것 등은 이러한 정주의 복합적인 지정학적 특징에 기인한 것이다.

결국 고려는 압록강 방면에 대한 직접 경략이 곤란한 상황에서 정주 축성을 통해 방비 강화와 함께 거란의 보주 방면을 압박했던 것이다. 그 결과 고려의 압록강 방면은 홍화진에서 개정된 靈州를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靜州, 동쪽으로는 定戎鎮이 요충지로 자리하였고⁴⁴⁾, 다시 영주와 두 주진 사이에는 각각 威遠鎮과 寧德鎮이 연결 고리 역할을 하며, 麟州와 朔州가 각기 정주와 정유진의 배후에서 지원하는 구도로 배치되었다. 덕종 2년 1차 장성은 바로 이 확대된 방어선을 연결한 것이었다.



〈그림 1〉 압록강 방어선과 1차 長城

44) 정유진의 전략적 위치는 문종 30년 거란이 定戎鎮 關外에 암자를 설치하여 고려에 압박을 가한 것에서 유추할 수 있다(『高麗史』 권9, 문종 30년 8월 庚戌).

(2) 長城 연장의 배경

덕종 2년 압록강 어귀의 麟州에서 내륙의 朔州까지 축조된 1차 장성은 정종 원년부터 연장 축조되었다. 이것을 2차 장성으로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정종 7년 영원진 등을 설치하면서 다시 장성이 축조되었는데, 이것을 3차 장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차 장성의 축조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가 보인다.

이 달에 西北路 松嶺 以東에 長城을 쌓아 邊寇의 요충을 막았다.⁴⁵⁾

위에 언급되었듯이 2차 장성은 정종 원년 송령을 기준으로 그 이동 지역에 대해 축조된 것인데, 이것이 언제까지 진행되었고 어디까지 연장되었는지는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2차 장성은 淸塞鎮으로 파악된다. 정종 7년 평로진과 영원진을 축성하면서 3차 장성이 축조되었으므로 앞서 완성된 2차 장성의 동단은 여기서 가장 가까운 청새진이 될 것이다.

이는 다음 자료를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西北路兵馬使가 압록강 以東에서 淸塞鎮 管轄의 立石村까지 蕃戶를 編籍하여 보고하였다.⁴⁶⁾

위의 기사는 정종 8년의 것으로서 압록강에서 청새진까지 蕃戶에 대한 編籍이 이루어진 사실을 전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청새진이 북계 장성의 관리체계에서 동쪽 한계선이 되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3차 장성을 축조한 이듬해에 진행된 번호 편적에서 그 대상이 청새진까지로 설정된 것은 아직 영원진 방면으로 관리체계가 연장되지 않은 결과이다. 곧 이전까지 장성의 東端이 청새진이었으며, 이를 토대로 형성된 관리체계가 3차 장성 축조 후에도 한동안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45) 『高麗史』 권6, 靖宗 원년 9월, “是月 築長城於西北路松嶺迤東 以扼邊寇之衝.”

46) 『高麗史』 권6, 靖宗 8년 정월 庚申, “西北路兵馬使 籍鴨綠以東 至淸塞鎮轄下 立石村蕃戶以聞.”

정종 원년 고려가 송령 이동 지역에 대해 장성을 연장 축조한 것은 蕃賊의 요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번적은 통상 장성 외곽에 거주하고 있던 여진 무리를 가리키는데, 정종 원년 당시 번적의 실체는 분명하지 않다. 정종대에는 여진의 來投와 來獻 기사만 보일 뿐이며, 來侵 기사는 정종 말에 가서 비로소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번적 방어를 목적으로 장성을 연장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장성 연장 바로 전에 고려와 거란 사이에 오간 외교 문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종 원년 5월 거란은 고려의 장성 축조를 문제삼았다. 이것은 물론 덕종 2년에 이루어진 압록강 방면의 관성 축조를 지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고려는 회신에서 장성 축조의 목적이 邊氓을 쉬게 하려는 것일 뿐 皇化를 저버리려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였다.⁴⁷⁾ 그리고 9월에 장성의 연장 축조에 들어간 것이다.

한편 정종 5년 거란이 압록강 동쪽에 성보를 加築하자 고려는 공사 중지를 요청하였다.⁴⁸⁾ 그러나 거란은 답신에서 변경의 방비를 위한 일상적인 조치로서 고려의 영토에 대한 영향은 없다며 거부하였다.⁴⁹⁾ 결국 양국은 압록강 동쪽 지역에서 성보를 구축하며 서로 견제를 도모하면서도 외교적으로는 국경 방어를 위한 일반적인 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장성의 연장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장성의 연장은 거란이 압록강 하류를 건너 내륙 쪽으로 우회하거나 압록강 중류를 건너 내륙 방면으로 직접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조건을 의식한 조치였다. 고종 3년 契丹遣種 金山王子 등은 무리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寧朔鎮과 定戎鎮 방면으로 진입하였다.⁵⁰⁾ 그런데 침공 과정에 義州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의주보다 상류 쪽에서 강을 건

47) 『高麗史』 권6, 靖宗 원년 5월, “是以列茲城寨 備我提封 蓋圖其帖息邊氓 非欲以負阻皇化.”

48) 『高麗史』 권6, 靖宗 5년 2월 丁卯, “遣戶部郎中庾先 謝安撫 仍請罷鴨江東加築城堡.”

49) 『高麗史』 권6, 靖宗 5년 4월 辛酉, “省所告鴨江東城壁 似妨耕墾事 具悉 乃聽聯城 置從先廟 蓋邊隅之常備 在疆土以何傷.”

50) 『高麗史』 권22, 高宗 3년 8월 乙丑, “契丹遣種金山 金始二王子 遣其將鵝兒 乞奴二人 引兵數萬 渡鴨綠江 侵寧朔定戎之境.”

너온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바로 정유진 방면으로 들어오게 된다. 후대의 일이지는 하지만 이를 통해 보주 방면의 정세가 고착된 뒤 양국의 관심이 그보다 상류 쪽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거란이 의주보다 상류 쪽에서 압록강을 건너 내륙 쪽으로 돌아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인종대 고려와 금 사이에 압록강과 장성 사이 지역을 둘러싼 외교 분쟁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당시 고려는 거란 주민이 압록강을 건너 朔州와 昌州 방면에서 耕種하는 것을 문제삼고 있었다.⁵¹⁾ 앞서 예종대에 고려가 의주 지역을 확보하였으므로 이들은 압록강 중류를 건너 개척을 진행한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삭주와 창주 등 중부 내륙 지역도 거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결국 1차 장성이 압록강 건널목을 초점으로 두고 이를 에워싸는 압록강 방어선을 연결한 것이라면, 2차 장성은 거란의 우회 진출 의도에 대응하기 위해 내륙 방면으로 장성을 연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장성 지역에는 女眞이 산재해 있었고 이들을 방비할 필요성은 상존하고 있었던 만큼 번적을 막는다는 것이 명분적인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거란의 영향권에서 멀어질수록 번적 방비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장성 연장을 시작한 근본적인 의미는 거란의 진출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선의 연장이라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번적 방어는 백성을 쉬게 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거란 쪽에 장성 연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로서 채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논리적 맥락을 감안하면, 역시 번적의 요충을 막는다는 사유를 달고 있던 영삭진 설치에 대해서도 거란의 동향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영삭진이 설치된 문종 4년을 전후해서 장성 인근 蕃賊의 침구가 증가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개 東蕃이었다. 처음에 동해안 지역을 노략하던 이들은 장성을 따라 서쪽으로 진출하여 영원진과 창주 일대까

51) 『高麗史』 권15, 인종 6년 12월 壬申, “今年八月十四日 安北都護府 牒來遠城 爲人民越江到昌朔州地分耕種.”

지 출몰하였다. 정종 11년에는 영원진에 침구하였고,⁵²⁾ 문종 5년 8월 龜州 郎將 康隣과 昌州別將 康彥·崔立 등이 蕃賊 6인을 잡아죽였다.⁵³⁾ 이 번적은 장성과의 관계로 볼 때 창주 지역에 침구하였으며, 그 토벌을 위해 귀주의 군사까지 동원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동년 9월에는 關外를 순행하던 西北面兵馬使가 번적을 만나 격퇴하기도 하였다.⁵⁴⁾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을 방비하기 위해 영삭진이 추가로 설치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동번적이 장성을 따라 침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을 막는 요충을 마련한다면 그 진로를 차단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영삭진은 내륙 방면이 아니라 압록강 방면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으로 보아 영삭진 설치 이유를 동번적의 침구 때문으로 보기 어렵다. “번적의 요충을 막는다”라는 설치 이유는 장성 연장의 목적을 “邊寇의 요충을 막는다”라고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외교적 명분적 이유로 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문종 4년에 있었던 거란의 西夏 정벌이 주목된다. 이 해 3월 거란은 西夏를 정벌하였고⁵⁵⁾, 6월에는 고려가 이를 축하하는 사신을 보냈다.⁵⁶⁾ 과거 거란이 송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 대대적인 고려 원정에 나섰던 전례가 있었다. 고려는 이번에도 거란이 서하 정벌의 여세를 몰아 고려에 대해 공세적으로 나올 것을 예상하고 방비를 강화한 것이다.

고려의 예상대로 거란은 정용진 방면으로 진출을 모색하였다. 곧 문종 8년 7월 抱州의 東野에 弓口를 설치하였고⁵⁷⁾, 문종 30년에는 거란이 정용진 關外에 암자를 설치하여 고려를 압박하였다.⁵⁸⁾ 이것은 문종대에 거란이 압록강 동쪽 정용진 방면으로 세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 다만 이 조치들은 외교적으로 수습되어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52) 『高麗史』 권6, 靖宗 11년 4월 丙午.

53) 『高麗史』 권7, 문종 5년 8월 甲辰.

54) 『高麗史』 권7, 문종 5년 9월 甲寅.

55) 『遼史』 권30, 興宗 重熙 19년 3월 癸卯.

56) 『遼史』 권30, 興宗 重熙 19년 6월 甲戌, “宋遣使來賀伐夏捷 高麗使俱至.”

57) 『高麗史』 권7, 문종 8년 7월.

58) 『高麗史』 권9, 문종 30년 8월 庚戌.

결국 고려의 영삭진 설치는 거란의 동향에 대응하여 정유진 방면의 방비를 강화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압록강 남쪽에는 현종말 이래 집중적인 축성을 통해 밀집된 방어선이 구축되어 있었다. 반면 압록강 동쪽, 곧 정유진 방면은 배후의 삭주와 거리가 멀어 상대적으로 방어선이 취약하였다. 이로 인해 정유진과 삭주, 그리고 남쪽의 안의진 사이에 공백 지역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영삭진을 설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종 7년의 영원진·평로진 설치와 3차 장성의 축조는 번적 방어의 목적이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3차 장성은 기존의 주진을 연결하는 형태로 수립된 1·2차 장성과 달리 공백 지역을 새로 개척하고 주진을 신설하면서 축조되었다. 이것은 당시 번적의 침구가 고조되고 있었던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정종 11년 번적이 寧遠鎮까지 노략하고 있었던 것을 볼 때 이전 시기부터 내륙 지역의 상황도 불안정했을 것이다. 고려는 공백 지역인 청새진 동쪽에 관성을 축조하고 진을 설치함으로써 번적에 대한 방비를 강화했던 것이다.

(3) 長城의 경유 州鎮

고려의 長城 축조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성이 경유하는 지역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진의 설치를 통해 방어선이 일정하게 설정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본령은 거점의 확보에 있다. 이에 대해 장성의 축조는 방어선의 확정을 의미하는 동시에 국경의 확정이라는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그 '선'에 대한 실체적 이해가 요구된다.

현종말에 수립된 압록강 방어선을 토대로 한 서부 지역의 장성은 그 경유 지역이 비교적 분명하다. 곧 麟州(寧海鎮)에서 출발한 장성은 압록강 연안을 따라 올라와 신설된 靜州를 거친 뒤 꺾여 威遠鎮과 靈州(興化鎮)를 경유한다. 여기서 다시 북쪽으로 꺾여 寧德鎮과 定戎鎮을 거친 뒤 문종 때

신설된 寧朔鎭을 지나 朔州로 넘어가게 된다.⁵⁹⁾ 여기까지가 1차 장성 구간이다.

그런데 삭주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2차 장성이 지나는 주진은 명확하지 않다. 덕종 2년 장성 축조 기사에 열거된 주진 중 삭주 이동의 내륙 주진은 雲州, 淸塞鎭, 寧遠鎭, 平虜鎭, 孟州 등 5개이다. 하지만 당시까지 이 방면에 설치된 주진의 배치를 고려할 때 이들만으로 장성 구간이 연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장성 축조 기사에는 장성 경유 지역이 될 수 없는 安水鎭이 들어 있는 등 기사 내용에 오류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장성 경유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요구된다.

삭주에서 동쪽으로 운주와 청새진 방면으로 장성이 이어지려면 일단 昌州를 거쳐야 한다. 창주가 장성 경유 지역이었음은 이곳에 關門이 설치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종 5년 昌州 關外의 蕃長 亡閑 등 28인이 來朝하였는데⁶⁰⁾, '關外'라는 개념을 통해 창주에 關門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창주는 정종 원년 梓田에 축성하며 설치된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전에 이미 설치된 상태였다. 재전의 축성은 장성 연장에 맞추어 창주를 재전으로 옮겨 설치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⁶¹⁾

그런데 덕종 2년 장성 축조 기사에는 昌州가 보이지 않는다. 단순한 누락일 수도 있으나 10여 개 이상의 주진을 모두 열거하고 총수를 밝힌 것이나 영삭진이 추기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는 점에 비추어 누락을 상정하기 어렵다. 장성의 출발점이면서 장성 축조 기사에 보이지 않는 麟州가 기사 중에 언급된 寧海鎭에 비정되는 것처럼 창주도 기사에 열거된 다른 주진에 비정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孟州가 昌州의 오기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昌'을 '孟'으로 오독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맹주는 동계 장성과의 연결 문제도 관련되므로 뒤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59) 寧德鎭과 定戎鎭, 靈州(興化鎭), 寧朔鎭은 조선초기에 병합되어 정녕현이 설치되었다가 뒤에 의주에 병합되었다. 이것은 이들이 서로 인접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60) 『高麗史』 권13, 예종 5년 정월, “昌州關外蕃長亡閑等二十八人 來朝.”

61) 윤경진, 앞의 논문(2011).

창주를 지난 장성은 운주를 거쳐 청새진으로 연결되는데, 그 중간에 延州를 경유하게 된다. 이것은 다음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宣政殿에 임어하여 延州關外蕃長 守弗首 등 7인과 淸塞關外蕃長 歸夫 등 18인, 平虜關外蕃長 要弗 등 28인을 인견하고 酒食과 例物을 내려주었다.⁶²⁾

위의 기사는 예종 4년의 것으로서 연주와 청새진, 평로진의 關外蕃長을引見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연주가 장성 관문이 설치된 지역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곧 장성은 연주를 거쳐 청새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연주 역시 장성 기사에 보이지 않는다. 연주가 누락될 여지가 없다고 보면, 장성 기사에 열거된 安水鎮을 연주에 비정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안수진은 장성 경유 지역이 될 수 없다. 연주는 본래 安朔鎮으로서 장성 기사의 安水鎮이 그 오기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물론 延州가 아니라 安朔鎮으로 기재되는 것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靈州가 興化鎮으로, 麟州가 寧海鎮으로 나오고 있다고 볼 때, 연주가 안삭진으로 기재되는 것이 크게 무리한 상황은 아니다. 무엇보다 연주가 장성의 경유 지역이라는 것이 분명함에도 장성 기사에 나오지 않고, 반대로 안수진이 장성 경유 지역이 될 수 없음에도 장성 기사에 나오는 상황에서 안수진을 안삭진(연주)의 오기로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한 해석이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2차 장성은 朔州에서 昌州, 雲州, 延州를 지나 淸塞鎮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3차 장성 구간인 平虜鎮과 寧遠鎮을 지나 동계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때 남는 문제는 장성의 孟州 경유 여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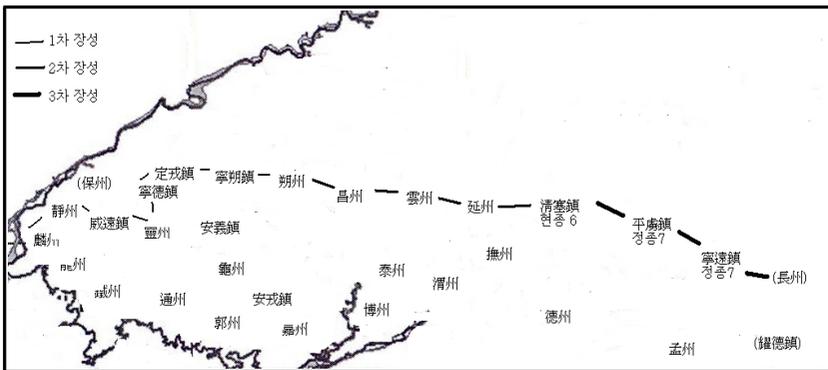
장성 축조 기사에는 동계 장성이 耀德鎮과 靜邊鎮, 和州를 경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성이 영원진에서 요덕진으로 이어지려면 남쪽으로 꺾여 孟州를 경유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예종대 여진 정벌 기사에 나타나

62) 『高麗史』 권13, 예종 4년 2월 己亥, “御宣政殿 引見延州關外蕃長守弗首等七人 淸塞關外蕃長歸夫等十八人 平虜關外蕃長要弗等二十八人 賜酒食例物.”

듯이 동계 장성은 長州와 定州, 宣德鎭을 경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요덕진-화주 구간보다 북쪽에 위치한다. 이러한 내용을 모두 수용하면 동계 장성은 두 개가 있었던 셈이 되는데, 실제 동계 장성을 두 갈래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다.⁶³⁾

그러나 長州와 定州 등에 축성이 이루어지면서 동계 장성 구간이 형성되는 시점은 정종 10년으로서 영원진 설치와 불과 3년의 시차가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장성 기사에 포괄되지 않은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장성 축조 기사의 기준 시점이 정종 7년이라고 해석하면 간단하지만, 이는 결국 북계 장성과 동계 장성에 대한 이해 방식에 차이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결국 북계 장성은 그 성격상 영원진에서 장주로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며, 요덕진-화주 구간은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장성 축조 기사의 맹주는 전술한 대로 창주의 오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⁶⁴⁾



〈그림 2〉 北界 長城의 경유 주진

63) 국사 교과서를 비롯해 각종 역사지도에서 동계 장성을 두 갈래로 그린 경우를 자주 찾아 볼 수 있다.

64) 『東輿圖』에는 定州 지역 외에 和州 지역에도 古長城이 보인다. 그러나 이 古長城을 덕종-정종대에 국경 지역을 연결하였던 장성의 일부로 볼 수 있는가는 또다른 문제가 된다. 이것은 동계 지역의 지정학적 특성 및 개척 과정과 연결되는 문제로 이해되는데, 이 문제는 後稿에서 따로 검토할 것이다.

4. 맺음말

이상에서는 고려 현종말부터 문종초에 걸쳐 이루어진 북계 국경 방면의 州鎮 설치와 長城 축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종말에 구축된 압록강 방어선을 토대로 덕종대 1차 장성이 축조되었고, 정종 원년과 7년 각각 2차 및 3차 장성이 축조되어 북계 국경을 관통하는 장성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장성 건설과 연계된 일부 주진의 연혁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는 현종 20년 威遠鎮과 定戎鎮을 설치하였다. 이들은 당시 최전방이었던 興化鎮을 중심으로 압록강 방면으로 진출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거란의 교두보인 保州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의 설치는 同年 거란 東京에서 일어난 興遼國의 반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홍요국의 지원 요청을 거절한 고려는 이 방면의 정세 불안에 대응하여 두 鎮을 설치하여 방비를 강화하였다.

현종 21년 2월에는 麟州의 증축이 있었다. 인주는 현종초 龍州에서 압록강 쪽으로 전진하여 설치된 것인데, 압록강 방어선의 강화에 수반하여 증축되었다. 인주는 덕종대 축조된 1차 장성의 西端이었다. 같은 해 9월 홍화진과 정용진 사이에 寧德鎮이 설치되었다. 영덕진은 거란 來遠城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대거란 외교 창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종 21년에는 興化鎮이 靈州防禦使로 개정되는 변화도 있었다. 홍화진은 최전방 요새였으나 인근에 다수의 주진이 설치되면서 전략 중심으로서 위상이 강화되었다. 이전까지 이 방면의 전략 중심은 龜州였는데, 영주는 그 기능을 이어받은 것이다.

덕종 원년에는 靜州가 설치되었다. 정주는 인주에서 거란 보주 방면으로 전진 배치된 것으로서 압록강에 인접하여 거란과 직접 마주하고 있었다. 이때문에 거란 쪽에서 압록강을 건너 정주로 내투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고려는 정주 관할에 있는 압록강의 섬에 이들을 안치시켰다.

한편 내륙 방면으로도 주진이 설치되었다. 淸塞鎮은 기존의 변경이었던 延州 및 德州부터 내륙 방면으로 개척을 진행하여 설치한 鎭으로서 설치 시점은 분명하지 않아 이론의 여지가 있다. 다만 삭주와 창주, 안의진과 같은 맥락에서 설치되고 있어 현종 6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정종 7년에는 寧遠鎭과 平虜鎭을 설치하여 3차 장성을 뒷받침하였다. 이 중 평로진이 청새진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 두 진은 몽고의 침입으로 永淸縣 지역에 僑寓하다가 廢合되었으며, 옛 영원진 지역에는 조선 세조 때 寧遠郡이 설치되었다. 寧朔鎭은 문종 4년 安義鎭의 榛子農場에 신설된 鎭으로서 장성으로 보면 정용진과 삭주 사이에 위치한다.

고려는 덕종 즉위 후 거란 聖宗이 서거하자 이를 기회로 압록강 방면으로 세력을 넓히고자 하였다. 이에 거란에게 압록강 城橋의 철거를 요구했으나 거란이 이를 거부하자 賀正使를 정지하고 太平 연호를 계속 사용하는 등 외교적 압박을 가하였다. 일각에서는 거란의 保州城을 攻破할 것을 청하였으나 무력 공격은 실행되지 않았다. 한편 고려는 거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도 모색했는데, 그 산물이 1차 장성의 축조였다. 이에 거란은 고려가 舊好를 살피지 않고 石城을 쌓아 大路를 막고 군사를 감춰두었다며 힐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축조된 장성의 범위는 현종말에 수립된 압록강 방어선을 연결하는 한편 이를 일정하게 확대하는 수준이었다. 당시 장성의 西端은 麟州, 東端은 朔州였다. 덕종 원년 삭주의 증축은 압록강 방어선의 동쪽 거점인 정용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앞서 인주를 증축하여 위원진의 배후로 삼은 것과 상통한다.

당시 장성 축조는 방어를 위한 '장벽' 건설을 넘어 적극적인 전략도 수반하고 있었는데, 그 산물이 바로 靜州의 설치였다. 장성 축조 2개월 만에 거란이 정주를 공격한 것이나 숙종 6년 고려가 정주 關內에 軍營을 설치하자 거란이 철거를 요구한 것은 정주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정주는 보주 방면을 압박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압록강 방면을 직접 경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마련된 것이었다.

그 결과 고려는 靈州(홍화진)를 중심으로 정주와 정용진을 군사 거점으로 삼고 그 사이에 위원진과 영덕진을 배치하며, 인주와 삭주로 하여금 정주와 정용진을 배후 지원하도록 하는 방어체계를 확립하게 되었다. 1차 장성은 바로 이들을 연결하는 것이었다.

고려는 정종 원년 松嶺 이동 지역에 2차 장성을 축조하였고, 정종 7년에는 내륙 공백 지역을 개척하고 3차 장성을 축조함으로써 북계 장성이 완성되었다. 2차 장성은 삭주에서 청새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3차 장성은 청새진에서 동계 방면으로 연결하는 것이었다.

정종 원년 고려가 장성을 연장한 것은 邊寇의 요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목적은 거란이 압록강을 건너 내륙 방면으로 직접 압박을 가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있었다. 고종 3년 契丹遺種 무리가 압록강을 건너 寧朔鎮과 定戎鎮의 방면으로 진입한 것이나 고려가 대금외교에서 압록강을 건너 朔州와 昌州 방면에서 耕種하는 것을 문제삼은 것 등은 이러한 구도를 반영하고 있다.

문종 4년 번적을 막기 위해 영삭진을 신설한 것 또한 거란의 정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었다고 이해된다. 고려는 거란이 西夏 정벌을 승리로 마무리한 후 고려 쪽으로 공세를 취할 것을 예상하고 방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용진 방면을 보강하기 위해 영삭진을 설치하였다. 실제 거란은 문종대 이 방면에 弓口門과 암자를 설치하면서 고려를 압박했는데, 이 문제는 외교적으로 수습되어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결국 1차 장성이 압록강 방어선의 확립 강화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2차 장성은 거란의 내륙 방면 진출에 대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내륙 방면의 공백 지역에 건설된 3차 장성은 번적 방어의 목적이 뚜렷한 것이었다.

3차 장성의 축조를 통해 북계 장성은 완성을 보았다. 그런데 그 경우 주진과 관련하여 덕종 2년의 장성 축조 기사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열거된 북계 주진의 수가 14개임에도 13개라고 적고 있는데, 이는 원 자료에서 追記된 寧朔鎮이 총수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關門이 존

제하여 장성 경유 지역임이 분명한 昌州와 延州가 장성 기사에 빠져 있다. 장성 기사의 孟州와 安水鎭은 이들의 오기로 판단된다. 다만 孟州는 장성 축조 기사에 동계 구간으로 열거된 耀德鎭-和州 구간으로 연결되는 지점인 만큼 동계 장성과 관련하여 추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덕종-정종대에 축조된 고려의 장성은 압록강 어귀의 麟州에서 출발하여 압록강변을 따라 靜州로 이어지다가 남쪽으로 꺾여 威遠鎭과 興化鎭에 이르며, 여기서 다시 북상하여 寧德鎭과 定戎鎭을 통과한 뒤 동쪽으로 寧朔鎭과 朔州를 거친 후 昌州, 雲州, 延州, 淸塞鎭, 平虜鎭, 寧遠鎭을 차례로 지나 동계로 연결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원고투고일 : 2011. 3. 28, 심사수정일 : 2011. 4. 21, 게재확정일 : 2011. 4. 29.)

주제어 : 北界, 長城, 州鎭, 麟州, 淸塞鎭, 寧朔鎭, 延州, 昌州, 孟州, 追記

<ABSTRACT>

Construction of the *Goryeo* Grand Fortress(長城) in the Northern Realm(*Bukgye*, 北界), and the Establishment of *Jujin*(州鎮) Units

Yoon, Kyeong-jin

In this article, how the Grand Fortress(長城) was created in the *Bukgye* region of the *Goryeo* in its early days, what was the background of such foundation, and what regions the fortress actually passed through, will be examined. Also some parts of the known history of certain *Jujin*(州鎮) regions related to the Grand Fortress, will be rectified as well.

At the end of King *Hyeonjong*'s reign, the *Goryeo* Government established some new *Jujin* units in a concentrated fashion at the border region, in response to the *Khitan* threat and certain fluctuations that were happening. Also, existing *Jujin* units were reinforced, and thus a defense line along the *Yalu* River was established. The Grand Fortress was created based upon this defense line in the early days of King *Deokjong*'s reign. It covered the region between areas like *Inju*(麟州) at the mouth of the *Yalu* River, and *Sakju*(朔州).

In the early days of King *Jeongjong*(靖宗)'s reign, additional sections were added to the fortress in its eastern end, and as a result the *Jujin* units which had been established with a distance from the fortress were connected to it as well. The Fortress' new east end was *Cheongsae-jin*(清塞鎮). Later, more *Jujin* units were established between the *Bukgye* and *Donggye* regions (the Northern and Eastern Realms) and the Fortress grew even longer. We can see that the *Bukgye* Grand Fortress was created

throughout three different time periods.

Yeongsak-jin(寧朔鎮), which was recorded as a region the Fortress passed through, was only added in later periods(追記), and it is highly possible that the Fortress did not pass through areas like *Ansu-jin*(安水鎮) and *Maengju*(孟州). They should have been replaced by *Yeonju*(延州) and *Changju*(昌州).

Key Words : Northern Realm(*Bukgye*, 北界), Grand Fortress(長城), *Jujin*(州鎮), *Inju*(麟州), *Cheongsae-jin*(清塞鎮), *Yeongsak-jin*(寧朔鎮), *Yeonju*(延州), *Changju*(昌州), *Maengju*(孟州), Later Periods(追記)